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 년 11 월 20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연설 내용: CUOMO 주지사, 관용 및 정의를 위한 투쟁에 뉴욕 주민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

여러분 모두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는 아마도 목사님의 소개에 대한 제 의견 몇가지를 말씀드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곳에서, 특별히 지금, 목사님과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워싱턴으로 재소환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누구도 **Butts** 목사님을 어느 곳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한 명의 상관을 섬기고 있으며, 그 상관은 지금 여기에 없고 목사님이 미래에 언젠가 그 상관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utts 목사님은 뉴욕주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목사로서의 그분의 위대한 공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또한 뉴욕 주립대학교 웨스트베리 (**SUNY Westbury**)의 총장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지역사회 활동가, 지역사회 발전 운동가이지만 저는 그분이 뉴욕주와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할 것이 더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Great Abyssinian Baptist Church** 에 참석하여 저명하신 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Lenox Avenue** 의 사자, 우리의 훌륭한 **Charles Rangel** 연방 하원의원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의의 사자, **Inez Dickens** 시의원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해 동안 훌륭한 시민이자 훌륭한 후원자로 지내온 **Alma Rangel** 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명한 공무원인 **Basil Paterson** 의 부인인 **Portia Paterson** 여사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녀는 **David Paterson** 님의 모친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추악한 정치 담론은 선거 당일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면에서, 국가적, 민족적, 국민적 차원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사회적 위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에 관한 미국인의 특성에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대답을 접하면, 제가 알고 사랑하는 미국을 위해 저의 영혼이 아파집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을 위해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는 것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고, 경멸감을 느끼며 혼란스러운 젊고 나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을 뿌리는 사람들은 회오리 바람을 거둘 것입니다.” 라는 구약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 지역에서 증오와 분열의 회오리 바람 속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흑인 신입생들은 린치를 가하는 이미지 및 인종 차별적 이미지들이 담겨있는 문자들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발견했습니다. 선거일 다음날, 노스 캐롤라이나 더럼의 길가 벽들에 누군가가 다음과 같은 인종 차별적인 메시지들을 그렸습니다: “흑인들의 삶은 중요하지 않으며, 너희들의 투표도 중요하지 않다.”

남부 빈곤 법 센터 (Southern Poverty Law Center)는 선거일 후 일주일 동안 이슬람교도, 이민자, 여성 및 성소수자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LGBT) 공동체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흑인과 유색 인종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 사건들이 437 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뉴욕주가 이 독약으로부터 면역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인우월주의 극우 비밀결사 (Ku Klux Klan, KKK)를 홍보하는 전단지들이 롱아일랜드의 팻치그에 주차된 차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맨해튼의 B 열차 (B Train)에서 나치 문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버펄로 외곽의 웰스빌에서는 누군가가 “미국을 다시 하얗게 만들자 (Make America White Again)”라는 단어로 둘러싸인 나치 문양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뿌리면, 히스테리를 거두어 들이는 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분열을 뿌릴 경우, 무정부 상태에 처할 것이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 이런 행동을 보았습니다. 1921 년 털사에서 발생한 인종 학살. 이십년대에 발생한 파머 습격 사건 (Palmer Raids) 및 이민자 대량 추방. 제 2 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 1950 년대의 반공 운동 (Red Scare).

이 선거 시즌 동안, 분노를 진심으로 만드는 좋은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사람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조장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소수를 위해 작동하는 경제로부터 30 년 동안 우리는 소득 불평등이 계속 악화되어 왔으며, 중산층이 빈곤 상태로 쪼그라들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렸으며 삶, 가족, 전체 지역사회를 파괴한 기술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여러분은 공장이 있었던 도시들과 그 공장이 사라져 버린 후 경제도 사라져 버린 도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그것이 정부라는 느낌입니다. 개인 보호의 마지막 피난처인 정부는 이제 막대한 기부를 하는 강한 자들의 이익에 호응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그들의 정부이고, 우리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된 이 두려움과 분노는 적을 찾습니다. 그것은 대상을 찾으며, 우리 자신과 달라 보이는 사람들, 즉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 다른 피부색, 다른 종교, 다른 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차이점을 악마로 만드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구성에 사회적 독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는 서로의 다른 점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한가지 인종이나 하나의 종교 또는 한가지 관습을 기반으로 건국되지 않았습니니다. 이 나라는 하나의 이상과 하나의 합의를 바탕으로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는 많은 인종과 문화에 의해 동의되었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악마로 만드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을 침식하고 우리 국가의 토대를 공격합니다.

뉴욕주는 여러 면에서 미국의 이상을 구현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 실험실입니다. 뉴욕은 세계를 환영합니다. 엘리스 아일랜드는 미국의 합의에 서명한 세대들이 거쳐간 곳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우리의 항구에 세워져 있으며 뉴욕 주민들은 그 성화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화는 더 높게 유지되어야 하며 그 성화는 어느 때보다도 반드시 밝게 빛나야만 합니다.

뉴욕에는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뉴욕은 항상 이 나라의 혁신적인 수도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회적인 양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분연히 일어선다는 것이지 알고 있으며, 이 나라에 미국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상기시켜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핵심적인 미국적 신념은 우리 모두가 자유와 정의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래에서 분열될 수 없는 하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세계에서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며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나라의 좌우명은 “E pluribus unum”입니다. 즉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규칙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이 카운티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미국인이라면, 여러분은 하나인 것처럼 행동해야 하며, 이러한 분열의 행동은 미국이 의미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분열은 반드시 멈춰야만 하고, 뉴욕 주민들은 불의를 보며 구경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뉴욕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성 차별주의, 인종 차별, 편견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양성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민자의 권리를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민자들을 추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저는 저부터 추방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Andrea Cuomo** 의 아들인 **Mario Cuomo** 의 아들. 일자리 없이, 돈이나 자원 없이 이 나라에 온 가난한 이탈리아 이민자인 그는 오직 미국의 약속만 믿고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들을 추방한다면 저는 “누가 안전하며 누가 남을 것인지”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민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들을 추방한다면 남게되는 유일한 사람들은 **Iroquois** 족, **Sioux** 족, **Cherokee** 족, **Apache** 족일 것입니다. 그들 이외의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땅의 방문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뉴욕의 메시지는 관용, 형제애, 통합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한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22 장 36 절에서 40 절 말씀 “스승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이 두가지 계명에 매달려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적혀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신념 즉 황금률을 코란을 통해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형제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다” 라고 말한 예언자 무하마드가 되풀이했습니다.

동서양이 조우하기 오래 전에 공자는 기원전 500 년경에 “내가 너를 위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지 마라.” 라고 썼습니다.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 전통조차도 “너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진실이며,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가 가슴에 품을 필요가 있는 격언들입니다. 이 격언들은 우리를 치유하고 멩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말로만 그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도 옮겨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뉴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Martin Luther King 은 나는 꿈이 있다 (I Have a Dream)는 연설에서 “진정할 사치를 누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취해야 하며 지금 당장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 격언들, 이 황금률, 이 지시들, 통합과 형제애의 임무는 단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국법입니다. 증오 범죄는 단순한 죄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기도 합니다. 이 어둠의 시간에, 우리 주는 무지를 밝혀줄 빛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반하는 것은 단순히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뉴욕은 법 위반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최대한 시행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 경찰이 우리 주에서 증오 범죄의 폭발에 대처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구성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가해자를 법의 최대한도까지 기소할 것입니다.

뉴욕의 법률은 모든 시민과 모든 아동을 보호할 것입니다. 저는 올해 1 월에 모든 공립 및 사립 학교의 모든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인권법 (Human Rights Law)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모든 젊은이가 우리 나라의 법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뉴욕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뉴욕은 또한 경제적인 여유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법적 보호를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변호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민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법적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는 공공 민간 합법 변호 기금을 마련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뉴욕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뉴욕은 먼저 이것을 만들어내는 기저에 깔린 공포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만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상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약속을 회복시키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리에 갇혀 있으며 미래가 없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직자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국산 파이의 공정한 조각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파이 조각 때문에 이웃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가 남긴 조각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대답은 모두를 위해서 경제적인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뉴욕은 아직도 미국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의 정상에서 반드시 그것을 외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 지침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서 반드시 “여러분이 두려움을 확산시키면 우리는 사랑을 퍼뜨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서 반드시 “여러분은 우리를 떼어 놓으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서로 더 강하게 뭉쳐 설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서 반드시 “예, 우리는 검정색, 흰색, 갈색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서 반드시 “우리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입니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서 반드시 “예, 우리는 기독교인, 이슬람교인,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이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일어나서 말합니다 “네, 우리는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은 더 강합니다. 우리 모두를 각각 연결하는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끈은 여러분을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끈은 지역사회의 구조를 만듭니다. 우리 중 하나가 일어나면 공동체의 구조가 우리 모두를 일으키고, 우리 중 하나가 낮아지면 우리 모두가 낮아진다고 우리는 일어나서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혜택과 부담을 공유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성장하고 서로에게 투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서 뉴욕을 가장 위대한 주로 만든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들과 다른 문화들을 수용했으며, 우리는 가족으로 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피부 색깔이나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뉴욕의 길을 미국의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성장시킬 미국의 꿈입니다. 분리는 독약이며 멈춰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뉴욕은 긍정적 성장을 위한 길을 보여주며 그 길을 선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로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꿈을 계속 살려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계속 지키기 위해 싸우며, 우리 모두를 위해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